

# 더불어 함께사는 농촌마을 만든다

## 도, 50개 사업에 1880억원 투입... 지역민·도시민 함께 공유하는 농촌공간 조성

전북도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함께사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50개 사업에 188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삼각농정 정책대상을 도시민·도시까지 확대하고, 생태문명시대에 대응한 '도농융합상생'으로 도시와 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시했다.

기존 행정주도의 농촌개발사업에서 주민 주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농촌의 패격함과 다원적 기능을 농촌체험관광으로 연계해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농촌공간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생생마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치유·힐링이 살아있는 '생생마을 조성'을 통해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는 전북 농촌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생태문명시대에 대응하는 '도농융합상생'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12개 시·군, 19개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마을생생교육사업, 마을기술사업단 운영, 도농상생 힐링프로그램 운영, 농촌소셜다기닝,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등 5개 사업이다.

또한, 도내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을 농촌치유(힐링) 마을로 전환하기 위해 전문가 TF팀을 운영, 본격적인 전북형 치유농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자 공모에 4개소가 선정돼 기존 사업자와 합산, 전국 최대 10개의 사업장을 운영해 함께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 농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농촌체험관광**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과 도시민 마을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 농촌관광의 뉴노발에 대응하기 위해 6개 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교육기관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농촌체험 박람회, 비대면 농촌체험 키트 개발로 도내 농촌마을이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또한,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여하는 외국인 스키대원들의 한국문화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외국인 편의시설 환경개선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코로나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지역연계형 농촌관광 코스 개발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촌관광 명가(名家)의 명성을 이어나간다는 포부를 밝혔다.

**▲귀농·귀촌**  
귀농귀촌은 맞춤형 정보 제공과 교육 등을 통한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초기, 정착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 2만명 유치를 목표로 임시거주시설 조성 등 7개 사업에 74억원을 투자한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북도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지원정책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상담 등을 강화한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을환영행사, 이장간담회, 동아리활동, 실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역에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발

굴·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환경을 조성한다.

시군의 대표노출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품목별 생산부터 가공·유통·마케팅까지 포괄 지원하는 1시간 1마을 산업화를 위해 8년간 288억원으로 심삼산골 나물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또한, 올해 본격적으로 홀로노미 소비를 겨냥한 맞춤형 전라 수립방안으로 언택트(untact)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 생활SOC 확충**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경관개선 및 주민의 역량강화로, 농촌 어디서나 불편없이 품격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농촌 생활 SOC 확충에 1,534억원을 투자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활력플러스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110개소에 국비 896억원 확보로, 전년도 774억원 대비 97억원이 증가해 올해는 도내 농촌마을 정주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 농촌이 사람사는 농촌, 활력넘치는 농촌으로 변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 농정거버넌스인 삼각농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신규사업을 발굴했다"며 "전북도 농촌공간이 코로나19로 지친 도시민에게는 쉼터, 놀터, 또 하나의 일터가 되고, 농촌 지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되도록 꾸준히 변화를 일구어내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후 전북도 행정부지사,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해 그동안 인정을 위해 노력한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최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 지자체 최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현판 제막식

##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시험분야서 인정

앞으로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마크가 붙으면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지자체 중 최초로 유일하게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시험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자체 최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후 전북도 행정부지사,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해 그동안 인정을 위해 노력한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 등 소수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2월 31일 국제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정

받은 바 있다. 이는 전국 17개소 지자체 축산물 검사기관 중 최초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지난해 12월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부여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기관에 주어지며, 국가기술표준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전 세계 104개국에서 공인력을 인정받게 된다.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기에는 유럽연합(EU)의 산계량 수입 조건이 있었다.

유럽연합은 도내 업체에 잔류물질 검사기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요구했고, 도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험 품질문서 제정·운영, 시험실 법적 인력 구성 및 환경 구축, 장비 검·교정, 국제 비교 숙련도 평가 합격 등을 국제기준에 걸맞도록 준비했다.

전북도가 국제적인 인정 시험기관을 보유함으로써 기존 미국과 아시아 수출이 주류였던 삼계탕 등 축산 가공식품의 수출이 유럽연합(EU)까지 확대돼 도내 업체의 브랜드 가치의 상승은 물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의 신뢰도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최후 행정부지사는 이날 현판식에서 "앞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을 인정 기준에 맞게 최적의 상태로 관리·운영하고, 국내 삼계탕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도내 업체의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될 수 있도록 축산물 검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 시·군 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논의

## 시·군 특색 살린 콘텐츠 발굴·온·오프라인 사업 등 추진

전북도는 21일 시·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과 올해 처음 도입한 도·시·군 공동협력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전북도는 관광마케팅 방향을 도와 시·군, 유관기관으로 설정하고, 14개 시·군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홍보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14개 시·군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발굴 및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사업인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마케팅',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 '2021 전북트래블미트'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유명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동영상상을 통해 시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해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송출하게 되며, 발굴된 여행콘텐츠는 전북도 전담 여행사와 온라인여행사(OTA)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 도는 스마트관광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관광 담당자 특강을 기획했다. KT 본사 전문가를 초빙해 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관광업무 담당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관광 비즈니스 스마

트관광 도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주은정 KT AI·빅데이터사업본부 팀장은 빅데이터 활용부터 관광지와 교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광 요소들의 예약, 결제, 편의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TaaS(Travel as a Service) 등을 소개하고, 시·군 관광지에 접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운영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비대면 관광이 점차 확장되면서 관광지 이용, 맛집, 관광지 방문, 쇼핑, 짐 배송, 숙박지 체크인·아웃 등 모두가 하나의 결제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 도와 시·군 공동홍보마케팅 사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기본소득국민운동전북본부' 공식 출범

'기본소득국민운동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20일 온라인 출범식과 함께 강남훈 교수(한신대학교 경제학과)의 강연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전북본부 출범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2020년 12월 6일 출범한 이후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출범식이며, 전북지역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한양환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가속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시대 등 급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본소득'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다양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전북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는 '우리시대의 과제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 강연을 했다.

현시대 세가지 과제인 인공지능,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세, 탄소세, 토지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담**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김양욱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도서관 편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정정위원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대학교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전주세일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스피치 노하우' 등

<b>&lt;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gt;</b>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 (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정읍시 공고 제 2021-139호

## 정우면 외야소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정읍시에서 시행 예정인 정우면 외야소하천 정비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정읍시정(건설과장)  
나. 주 소: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 업 명: 정우면 외야소하천 정비공사  
나. 위 치: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일원  
다. 사 업 기 간: 2020. 1월 - 2023. 12월  
라. 사 업 내 용: 하천정비 L=1,73km, 교량개설 3개소
-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일체  
-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612, 657-2, 657-2, 850-8, 611-3, 613-5, 628-1, 628-3, 627-3, 629-2, 630-1, 658, 산165-1, 657-5, 정우면 대신리 657-4, 44-3, 44-4, 44-5, 44-10, 639-1, 44-12, 46-4, 44-7, 47-1, 46-1, 644, 47-4, 49-1, 49-6, 48-3, 48-4, 49-7, 정우면 우일리 520-9, 499-3, 산2, 164, 540, 511-1, 511-2, 511-3, 511-4, 511-5, 540-1, 495, 162-2, 162-3, 162-1, 541-1, 162-5, 162-4, 540-2, 549-1, 546-1, 534-19, 547-1, 159-6, 534-16, 534-1, 159-9, 547, 549, 159-1, 159-2, 160-3, 534-2, 534-3, 548, 160-1, 535-1, 535-2, 195, 536-1, 196, 540-3, 537-1, 550, 38, 41-2, 538-1, 577, 578, 563-10, 563-9, 579, 580, 581, 산18-1, 538-2, 551, 538-3, 538-4, 538-5, 493, 산21, 15, 539-1, 16, 539-2, 493-2, 539-3, 북면 화현리 514-3, 562-1, 589, 562-2, 560, 562-3, 562-5

나. 물 건: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 열람 및 의견신청**  
가. 열람 및 의견신청 기간: 2021. 01. 21. ~ 2021. 02. 04까지 (15일간)  
나. 열람 및 의견신청 장소: 정읍시청 건설과 하천관리팀(☎63-539-5833, 5834)  
다. 열람내용: 편입토지조서(열람장소 비치) /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등 착오 또는 누락여부

라. 이의신청: 토지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정읍시장**